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4] 경제 : 소득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 지수 (135p)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시장의 자유허적 기능에 따라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 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져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면, 이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사회 문제로 인식된다. 한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지표가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대표적인 소득 불평등 지수로는 로렌츠 곡선과 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지니 계수가 널리 활용된다.

로렌츠 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로, 가로축에는 인구의 누적 비율을, 세로축에는 소득의 누적 점유율을 나타낸다. 만약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하위 1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10%를, 하위 50%의 인구가 전체 소득의 5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원점에서 시작하여 우상향하는 45도 각도의 직선이 되는데, 이를 완전균등선이라 부른다. 현실의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은 일반적으로 완전균등선 아래쪽으로 활처럼 휜 형태를 띤다. 이 곡선이 완전균등선에서 멀어져 아래로 더 많이 휨수록 소득 분배가 그만큼 더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렌츠 곡선은 직관적으로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게 해주지만, 두 사회의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불평등한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지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소득 불평등 정도를 0과 1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 지표이다. 지니 계수는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균등선 아래 삼각형의 전체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된다. 만약 소득 분배가 완전 균등하여 로렌츠 곡선이 완전균등선과 일치한다면 두 선 사이의 면적은 0이 되므로 지니 계수는 0이 된다. 반대로 단 한 사람이 사회 전체의 소득을 모두 독점하는 완전 불평등 상태라면 로렌츠 곡선은 가로축에 붙어 직각으로 꺾이는 모양이 되고, 이 경우 지니 계수는 1의 값을 갖는다. 이처럼 지니 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단일한 수치로 제시하여 국가 간 또는 시기별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니 계수 역시 소득 분배의 구체적인 양상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산층이 붕괴되어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으로 소득이 양극화된 사회와, 소득 격차가 사회 전반에 걸쳐 완만하게 나타나는 사회의 지니 계수가 동일한 값으로 산출될 수 있다. 즉, 서로 다른 형태의 소득 불평등이 동일한 지니 계수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팔마 비율과 같은 대안적 지표가 주목받

기도 한다.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분배 구조의 양극단에 집중하여 불평등을 측정한다. 이는 소득 분배에서 중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관찰에 기반하며, 지니 계수가 민감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상·하위 계층 간의 격차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로렌츠 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이다.
- ㉡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 ㉢ 완전균등선은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는 선이다.
- ㉣ 팔마 비율은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 ㉤ 서로 다른 형태의 소득 불평등이 동일한 지니 계수로 나타날 수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은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양극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 ㉡은 중간 계층의 소득 점유율 변화에 민감하다.
- ㉢ ㉢은 ㉠과 달리,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그 값이 산출된다.
- ㉣ ㉣은 서로 다른 소득 불평등 형태를 동일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 ㉤ ㉠과 ㉡은 모두 사회 전체 소득 분배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완전균등선은 현실의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완전 불평등 상태를 의미한다.
- ㉢ 로렌츠 곡선은 지니 계수가 지닌 통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 ㉣ 팔마 비율은 소득 분배의 양극단에 집중하여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 서로 다른 형태의 소득 불평등은 팔마 비율로는 동일한 값으로 산출될 수 없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A국과 B국은 사회 전체의 소득과 인구 규모가 동일하며, 두 국가의 지니 계수는 0.4로 같게 나타났다. 두 국가의 소득 계층별 소득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위 40% 소득 점유율	중위 50% 소득 점유율	상위 10% 소득 점유율
A국	10%	40%	50%
B국	20%	50%	30%

- ① A국의 로렌츠 곡선은 B국보다 완전균등선에서 항상 더 멀리 있을 것이다.
- ② B국은 A국보다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 팔마 비율이 낮게 측정된다.
- ③ 팔마 비율을 적용하면, A국이 B국보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각한 사회로 해석된다.
- ④ 지니 계수가 동일하므로, 두 국가의 소득 분배 상태는 구체적인 양상에서도 유사할 것이다.
- ⑤ 두 국가의 로렌츠 곡선이 교차하더라도 지니 계수가 같으므로, 두 사회의 불평등 정도는 같다고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8] 경제 : 관세의 기능과 종류 (139p)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상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는 국제 무역 질서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한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국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켜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을 지니기도 한다. 이처럼 관세는 재정 확보와 산업 보호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바탕으로 각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며, 그 기능적 우선순위나 부과 방식은 시대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 왔다.

관세의 기능 중 가장 전통적인 것은 국가의 살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 기능이다. 특히 산업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세원 확보가 어려운 개발도상국이나 근대 국가 초기에는 관세가 주된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내 산업을 외국 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더욱 강조된다.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산품의 판매가 촉진되고, 이는 관련 산업의 생산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나아가 관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수행하는데,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정부의 조세 수입이나 국내 생산자의 이윤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기 때

문이다.

관세는 부과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식은 과세 표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증가세와 종량세로 구분된다. ㉡증가세는 수입 물품의 가격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세액도 함께 증가하여 일정한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수입업자가 통관 시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행정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반면 ㉢종량세는 수입 물품의 수량, 무게, 부피 등 물리적 단위를 기준으로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과세 표준이 명확하여 행정이 간편하고 조세 저항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적인 관세 부담률이 낮아져 국내 산업 보호 효과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

관세는 부과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될 수 있는데, 재정 수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는 재정 관세와 국내 산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 관세가 대표적이다. 또한 특정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특정 국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맞서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보복 관세가 있다. 다른 나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수입품에 대해 그 보조금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상계 관세 역시 이러한 성격을 띤다. 한편, 증가세와 종량세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혼합제도 운용된다. 이는 증가세와 종량세로 각각 세액을 계산한 뒤 둘 중 높은 금액을 관세로 징수하거나, 증가세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5.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② 혼합세는 증가세와 종량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용된다.
- ③ 종량세는 과세 표준이 명확하여 행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④ 증가세는 물가 상승 시에도 일정한 보호 수준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 ⑤ 특정 국가가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1	④	2	④	3	④	4	③
5	⑤	6	④	7	③	8	④
9	⑤	10	④	11	④	12	①
13	⑤	14	②	15	⑤	16	①
17	⑤	18	⑤	19	②	20	⑤
21	③	22	⑤	23	①	24	③
25	④	26	④	27	④	28	④
29	③	30	②	31	⑤		

1. ④

[정답해설]

④ 4문단에 따르면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산출된다.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지표는 3문단에서 설명하는 지니 계수이다. 따라서 팔마 비율의 산출 방식을 잘못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피하기]

- ① 2문단에서 로렌츠 곡선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소득 분배가 완전 균등하면 지니 계수는 0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지니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동일한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완전균등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⑤ 4문단에서 중산층이 붕괴된 사회와 소득 격차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사회의 지니 계수가 동일하게 산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지니 계수의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

2. ④

[정답해설]

이 글은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 계수와 팔마 비율을 설명하고 있다. 4문단에서는 지니 계수가 지닌 한계로, 중산층이 붕괴되어 소득이 양극화된 사회와 소득 격차가 완만하게 나타나는 사회의 지니 계수가 동일하게 산출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즉, 서로 다른 형태의 소득 불평등이 동일한 지니 계수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니 계수)은 서로 다른 소득 불평등 형태를 동일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 ① 3문단에 따르면 지니 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전 균등 상태를 의미하므로, 소득 양극화와는 거리가 멀다.
- ② 4문단에서 팔마 비율은 소득 분배에서 중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관찰에 기반하며, 분배 구조의 양극단에 집중하는 지표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중간 계층의 소득 점유율 변화에 민감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3문단에서 지니 계수(㉠)가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산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팔마 비율(㉡)은 상·하위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통해 산출되므로,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산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4문단에서 지니 계수(㉠)는 소득 분배의 구체적인 양상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팔마 비율(㉡) 역시 양극단에 집중하므로 사회 전체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④

[정답해설]

④ 4문단에서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 계층과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 값으로, 분배 구조의 양극단에 집중하여 불평등을 측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피하기]

- ① 2문단에 따르면 현실의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로렌츠 곡선이며, 완전균등선은 모든 사람의 소득이 완벽하게 동일한 이론적 상태를 나타내는 45도 각도의 직선이다.
- ② 3문단에서 지니 계수는 0일 때 완전 균등 상태를, 1일 때 완전 불평등 상태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니 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는 더 균등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지표이다. 선지는 두 지표의 관계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 ⑤ 4문단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소득 불평등이 동일한 값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것은 지니 계수의 한계점으로 언급되었다. 팔마 비율이 이러한 한계로부터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4. ③

[정답해설]

③ 지문에서 팔마 비율은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분배 구조의 양극단에 집중하여 불평등을 측정한다고 설명한다. <보기>의 자료로 팔마 비율을 계산하면 A국은 50/10=5, B국은 30/20=1.5이다. A국의 팔마 비율이 B국보다 현저히 높으므로, A국이 B국보다 상·하위 계층 간 격차, 즉 소득 양극화가 더 심각한 사회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지니 계수가 포착하지 못하는 불평등의 구체적인 양상을 팔마 비율이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한다.